

<신간> 조선 정치의 마지막 얼굴

연암뉴스 | 기사입력 2012-03-26 08:00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조선 정치의 마지막 얼굴 = 연갑수 지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작고한 저자의 유고집.

'19세기 조선의 정치세력과 대외관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조선시대 말기 벌어졌던 이른바 '세도정치'를 탐색했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 역사학계에서 19세기 정치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7-18세기 영·정조 치세의 화려함과 일제 강점기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이른바 '망국 이행기'여서 연구자의 마음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동안 '세도정치의 폐단'만이 부각돼 세도가문이 조선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혔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풍양조씨와 안동김씨 등 당시 세도가문이 배출했던 정치가 조영하와 김병시 등은 의외로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시대에 맞지 않아 망국의 원인이 됐다거나 세도정치로 인해 19세기 조선에는 정치기능 자체가 부재했다는 관점 등은 모두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회평론. 372쪽. 2만5천원.

▲중일전쟁과 화북교통 = 임채성 지음.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중국 화북지역에서 전개된 일본제국의 수송전을 다룬 연구서.

화북교통주식회사는 중일전쟁 당시 중국 화북지역을 차지한 일본이 철도망 중심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구축하려고 1939년 설립했다.

2차 대전 종전까지 수송전을 전개한 화북교통은 중국의 주요산업 산물과 물자를 일본으로 송출했다. 한편으로는 군수물자, 민수물자, 여객을 대륙 전역으로 수송했다.

중국의 철도는 일본 군부에는 아시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는 기반이었고, 중국인들에게는 통일국가 수립과 국민경제 건설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 됐다.

저자는 일본제국의 철도가 중국 인민의 철도가 되는 과정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파헤친다.

일조각. 360쪽. 2만8천원.

▲제국의 수도, 모더니티를 만나다 = 엘리스 K. 틱튼·존 클락 엮음. 이상우·최승연·이수현 옮김.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쇼와 모더니즘까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시드니대학 교수들이 2000년 하와이대학출판부에서 출간한 'Being Modern In Japan'을 번역한 것이다.

미술, 시각적 표상들, 미술 관중, 생활양식, 상업디자인, 문화주택, 카페, 여성잡지, 문학, 근대 서사 담론 등을 통해 1910-1930년대 일본사회에 솟구쳐 오른 모더니티의 욕망을 분석했다.

소명출판. 352쪽. 2만7천원.

▲이런 나라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 = 헤럴드경제 정치·사회 선임기자인 함영훈 등 모두 6명이 참여한 탐사기획물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구별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6-1974년생)를 '잊힌(forgotten) 세대'인 'F세대'로 규정한다.

대표저자인 함영훈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한바탕 열심히 한 뒤 축제판을 벌이지만, F세대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옷이 흠뻑 젖기만 할 뿐 마를 새가 없어서 숨죽이며 분노를 축적했다"고 그 세대의 특징을 요약한다.

그는 "F세대는 큰 것 한방 터뜨리지 못하고 분노를 키보드와 휴대폰 자판에 실어보낸다"면서 "그들의 인생은 8비트 PC로 시작돼 PC통신 장악, 인터넷 및 카페, 미니홈의 점령을 거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점거로 이어지면서 네트워크 파워를 키어온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SNS를 통한 소통에 능한 F세대가 아랫세대와 연대해 이미 '2040연대'를 만들어냈으며, 앞으로 선거국면 등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의창. 312쪽. 1만2000원.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 = 조돈문·배성인 엮음. 진보적 지식인들의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가 기획한 책. 52명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해 경제·기업·고용과 노동·복지·정치외교·남북관계·교육·문화 등 14개 영역에서 217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메이데이. 760쪽. 2만5천원.

ckchu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북, 미사일 동체 동창리 운반 발사준비(종합2보)

☞<부고> 김승업(영화의 전당 대표이사)씨 모친상

☞종교계, 생명과 탈핵 주제 합동 세미나

☞-PGA- 우즈, 아널드 파머 3R 단독 1위(종합)

☞홍준표 측 "BBK 가짜편지 쓴 신명씨 고발"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인쇄하기 취소